

부록공지

+ 찬미예수님,

성전 보수를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성전 보수 기금 모금에 2 만 불부터 100 불까지, 한미 총 210 여 명의 교우분들께서 아낌없는
봉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우리 에디슨 한인 성당이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데 귀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당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영구히 기념하고자 기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성명을 감사 명판에 새겨
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신자 공동체와의 조율 및 본당의 통일된 기념 기준(1,000 불 이상 명판
기록)을 따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정 금액 미만 봉헌하신 분들의 성함을 명판에 모두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다 새겨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간이 만든 작은 명판에는 비록 다 기록되지 못할지라도, 과부의 엽전 두 닢을 귀하게

보신 하느님께서서는 교우 여러분이 바치신 그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똑똑히 기억하시며

천상 생명의 책에 더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성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의 지향과 가정에 하느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와 양해를 구합니다.

재정분과장 올림



<< 성전기금 현황 보고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Iris ID Systems	1,300	33	박애순	500	65	오석미	1,200	97	임소라	100
2	보암회/대건회/야고보회	1,704	34	박재영	1,500	66	오진아	2,000	98	임영자	1,000
3	주일학교	500	35	박정훈	1,500	67	오선아		99	장문국	1,000
4	유스그룹	400	36	박정희	100	68	오현아		100	장수지	1,000
5	반석회	2,000	37	박화성	1,000	69	오용운	2,000	101	장종현	620
6	이스트브론스웍 구역	1,167	38	방숙자	400	70	오현주 (부제님)	12,000	102	전광수	1,000
7	성모회	5,000	39	배인경	500	71	우성현	1,000	103	정명숙	300
8	Vesta-Oh LLC	5,000	40	백상헌	1,500	72	우영인	1,000	104	정진오	1,000
9	강식	1,200	41	백영숙	1,000	73	유병기	3,200	105	조순자	300
10	곽신규	1,000	42	변상민	1,000	74	육순재	5,000	106	조인	1,000
11	곽율리안나	200	43	변상원	1,000	75	윤석로 (부제님)	1,000	107	진윤식	500
12	김귀옥	500	44	변태용	4,700	76	윤승현	1,000	108	채희백	5,500
13	김도용	500	45	서경호	1,000	77	윤준희	5,000	109	최경하	1,200
14	김삼식	1,100	46	서정근	1,500	78	이광호	3,000	110	최영옥	1,000
15	김성일	2,000	47	서현주	1,000	79	이기순	500	111	최영찬	2,000
16	김수완	5,000	48	성낙순	500	80	이막동	500	112	최완준	1,000
17	김순옥	1,000	49	성낙철	1,000	81	이문식	1,000	113	최승웅 (부제님)	5,000
18	김안나	1,000	50	성순영	500	82	이보현	1,000	114	최위숙	500
19	김영필	2,000	51	성혜성	200	83	이성문	1,200	115	최진호	2,000
20	김정숙	500	52	성준엽	1,000	84	이소희	500	116	최현지	2,000
21	김태경	700	53	손경진	300	85	이순분	500	117	최춘옥	2,840
22	김진	1,000	54	손영렬	1,000	86	이신자	300	118	추승호	1,000
23	나채국	1,200	55	손영수	1,000	87	이용문	2,000	119	토레스 은식	2,000
24	나한복	1,000	56	손종철	3,000	88	이용범 (신부님)	3,000	120	하건철	1,100
25	문형곤	100	57	손흥구	1,500	89	이재구	1,200	121	한상철	1,000
26	민병집	2,400	58	신준호	1,200	90	이재서	1,000	122	한크리스토퍼	1,000
27	박규희	300	59	안을봉	1,500	91	이종권	1,500	123	허중	1,200
28	박기호	1,000	60	안청자	500	92	이준원	100	124	황분숙	500
29	박덕화	600	61	안현정	1,500	93	이호용	1,000	125	황태진	3,000
30	박동준	300	62	양영길	1,000	94	이흥례	110	126	익명 (2)	2,000
31	박락준	2,000	63	염기선	3,000	95	임문수	500	127	익명 (5)	640
32	박병태	1,200	64	오경숙	3,000	96	임성주	1,000	128	미국신자 (83)	104,925

약정금액: \$285,216.43/\$300,000 (95.07%), 납부금액: \$280,516.43/\$300,000 (93.51%)

연중 제 16주일

2026년
7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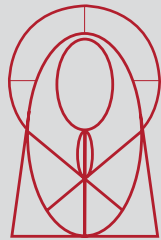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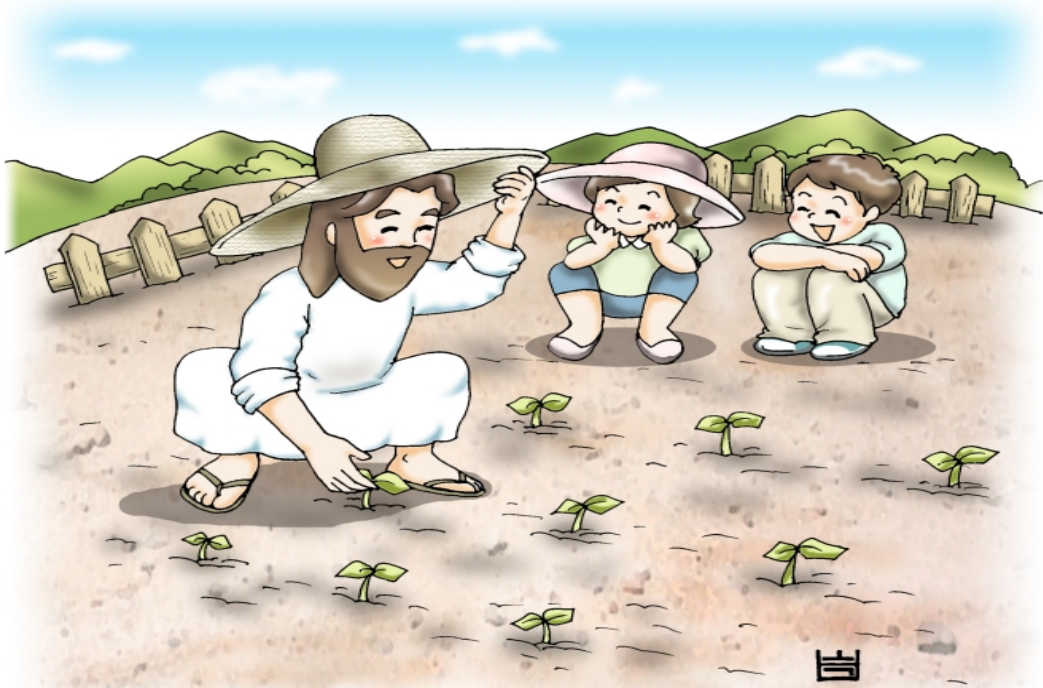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오용운 토마스아퀴나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 31)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지혜서 12,13,16-19

화답송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후렴.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제 2독서 로마서 8,26-27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 13,1-23

성가 입당 2 봉헌 219, 510 성체 160, 154 파견 4 (특송 76)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강섭(요한) - 가족
- 이은례(데레사) - 박두선(요셉)
- 광창진(스테파노) - 광무시아
- 김삼식(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계영(프란시스코) - 가족, 이규순(미카엘)
- 김정수(이사벨라) - 윤안젤라
- 공인영(티모데오) - 김로마나
- 황규준(프란치스코)의 영혼을 위해 - 황선주(요셉피나)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성낙순(미카엘라) 건강을 위하여 - 가족
- 김진희(아우달리아) - 가족
- 김정선(스텔라) 건강을 위하여 - 가족, 최레지나
- 이마이클의 건강을 위하여 - 최레지나
- 박상배(스테파노) 가정을 위하여 - 성가대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203(118명) 2차 헌금.....\$252
- 교무금.....\$2,340
- 최영옥(7) 최진호(7~8) 윤준희(7) 황태준(7~8) 오용운(7)
- 이재서(7~9) 서영원(7~8) 임문수(5~6) 이호용(7) 김귀옥(5~9)
- 감사금.....이재구(\$200) 이흥례(\$50)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 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흡연 금지)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정선(스텔라) 이 마이클

★ 2차헌금 (7/19) 2차 헌금이 없습니다

★ 빵과 포도주 봉헌

- 7/19 최숙희 최윤규 7/26 박화성 윤규옥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윅 9/20 피스브릿지
- 10/18 노스브런스윅 11/15 렛저스 12/20 먼로 1/17 노스에디슨
- 2/21 사우스브런스윅 3/21 썸머셋 4/18 에디슨 5/17 올드브릿지

★ 지난 주일 사목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당 공동체를 위해 애써주신 전임 사목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 사목회장으로 오용운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께서 봉사의 직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사목회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본당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당보수기금이 모두 마련될때까지 모든 감사헌금은 성당보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미사책> 2026년 8월부터 시작하는 미사책을 신청하셨지만 아직 미납하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책 95불, 큰책 125불입니다.

★ 요셉회

- 일시/장소: 8월 2일(주일) 미사 후 / 이광호(다니엘)님 맥

★ 제30차 2026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 (토) 9 am – 7월 26일 (일) 12 pm

장소: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천주교회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참가비: \$40/인

신청 및 문의: 당일 현장신청 가능 or kkaccrs.ne@gmail.com



★ 제 1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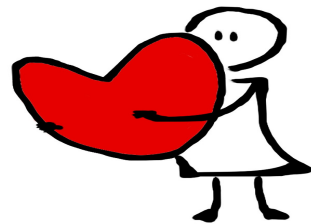
지혜서 12,13.16-19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로마서 8,26-27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태 13,2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새로운 주교님을 모시기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에 내려주신,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제5대 교구장,
제임스 주교님을 보내주시어,
그의 여러 은사를 통해,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를 위한,
새로운 주교 선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다음 주교님을 선별하시는 과정 중에,
현명한 조언자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 오실 주교님이,
신성한 스승이신 당신을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다음 주교님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향해,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분이 지혜와 충실함,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부 뉴저지 전역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어머니이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새로운 주교님과, 그에게 맡겨진 양 떼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